‘입사’ 모집 2년만에 3배 급증

〈입학사정관제〉

입시 중요 축 부상 … 공통기준 마련·학생부 반영 늘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6일 발표한 2011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주요사항을 보면 대학입시의 새로운 모델인 입학사정관제가 강화돼 올해도 학생 선발의 중요한 축이 됐음을 알 수 있다.

수시모집 선발인원 23만5250명 중 14.6%에 해당하는 3만4408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뽑는다.

◇입학사정관 전형 126개대로 확대=작년 86개교에서 40개 대학이 늘었다. 건국대·울산과기대·목포대·건양대 등 정부지원 대학이 58개교(2만7415명), 안동대·신라대·한남대 등 독자실시 대학이 68개교(6993명)다.

2009학년도 40개교와 비교하면 2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해 특별전형의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모집인원은 2009학년도 4476명(수시·정시 합계), 2010학년도 2만1392명에서 3만4408명으로 2년 전과 비교하면 7.69배 늘었다.

◇입학사정관 공통기준 도입=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고교교육과 연계해 제도를 안착하도록 ‘기본 룰’을 만들었다. 한마디로 ‘이런 자료로 학생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한국형 입학사정관제의 틀이다.

우선 공교육을 저해하는 전형요소를 싹 덜어냈다. 토익·토플·텝스, JLPT(일본어능력시험), HSK(중국한어수평고시)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과 교과 관련 교외수상 실적, 구술 영어 면접 등을 주요 전형요소로 반영하거나 이런 자료로 지원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해외 봉사실적 등 사교육 의존 가능성이 높은 체험활동도 마찬가지다.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를 영어로 기술하게 해서도 안 된다.

지원자격을 특목고 또는 해외고교 졸업(예정)자, 수학·물리·과학 등 올림피아드 입상자, 논술대회·음악콩쿠르·미술대회 등 입상자로 제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일반 고교에 개설하기 어려운 전문교과 이수를 요구하거나 해당 대학이 개설한 교과 관련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금기 사항이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은 누구든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수시 비중 60% 넘었다=2011학년도 수시모집은 196개대에서 23만5250명을 모집해 2010학년도(194개대, 22만7092명)보다 8158명 늘었다. 대교협은 입학사정관 전형의 확대에 따라 수시모집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전체 선발에서 차지하는 수시 비중도 2010학년도 59.0%에서 2011학년도 61.6%로 2.6%포인트 높아져 처음 60%를 넘었다.

국공립대학이 41개대 4만7955명(20.4%)이며, 사립대학은 155개대 18만7295명(79.6%)이다.

전형유형별로 보면 일반전형이 163개대 11만3207명(48.1%), 특별전형이 191개대 12만2043명(51.9%)이다.

특별전형에서는 특기자전형으로 8073명(121개대), 대학독자적기준전형으로 8만2777명(184개대), 취업자전형으로 532명(16개대)을 선발한다.

대학독자적기준 특별전형 중에는 교과성적(내신) 우수자 특별전형이 38개대 1만3천720명으로 가장 많다. 정원외 특별전형으로는 농어촌학생 9천335명, 전문계고교출신자 1만60명, 특수교육대상자 830명 등이다.

◇학생부 반영 늘고 논술은 줄어=학교생활기록부를 100% 반영하는 대학이 전년보다 31개교 증가한 101개교로 나타났다. 60% 이상 반영대학은 32개교다.

수시모집에서는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은 고려대·아주대·연세대 등 34개교로 전년도(37개교)보다 3곳 줄었다.

면접·구술고사를 2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은 92개교로 작년과 같았지만 10% 이상 반영하는 학교는 20개교에서 8개교로 줄었다. 5% 이상 반영하는 대학은 11개교다.

◇수험생 유의사항=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학생은 등록기간(12월 13~15일)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모집(정시,추가)에 지원할 수 없다. 수시모집은 전형기간이 같아도 대학 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에 이중 등록이 금지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합격 가능성 입체적으로 분석 자신에 꼭 맞는 대학 도전하라

■ 수시 지원전략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6일 발표한 전국 196개 대학의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요강을 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입학사정관 전형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수험생들은 자신의 내신 성적과 수능 모의평가 성적 등을 토대로 자신의 강점을 찾고 수시와 정시 중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준비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대체로 모의평가 성적과 학생부 성적을 비교해 모의평가 점수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이거나 학생부 성적에 비해 낮은 편이라면 수시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

논술, 면접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대학별 전형 분석은 필수=올해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중심의 일반전형 선발인원이 줄어든 반면 다양한 능력과 특기, 재능을 평가하는 특별전형 선발인원이 늘었다. 이는 모집 방식이 그만큼 다양해졌다는 의미다.

수시 전형은 ▲성적우수자 전형 ▲논술중심 전형 ▲추천서·자기소개서·학생부 등 서류중심 전형 ▲외국어·수학 등 특정 과목 우수자 전형 등 유형별로 중심 전형 요소가 다르다.

또 학생부를 반영한다고 해도 교과·비교과 반영 비율이나 항목이 서로 달라서 어느 전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준비 전략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학별 전형 요강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신에게 맞는 전형 찾기=올해 수시에서는 대부분 대학이 2~3차까지 분할 모집을 실시한다. 1차 모집은 학생부, 2차 모집은 대학별 고사에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등 모집 시기에 따라 전형 요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형 방법을 시기별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학교의 복수지원 허용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한다.

학생부 성적은 괜찮지만 평소 모의고사 성적이 좋지 않은 데다 별다른 특기도 없다면 학생부 중심 전형이 유리하다. 또 특기는 없지만 논술에 자신이 있다면 논술중심 전형을, 학생부 성적이 신통치 않고 논술도 자신이 없다면 적성고사 중심 전형을 노리는 것이 좋다. 이때는 각 대학 기출문제를 통해 반드시 문제유형을 숙지해야 한다.

외국어·수학·과학 등 특정과목 우수자 전형은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어학시험 성적이나 올림피아드 입상 성적 등 지원자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많아서 자칫 수시전형을 통과하고서도 대입에 실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자신의 모의평가 성적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별 고사, 논·구술 준비법 =대학별 고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대학이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로 진행될 전망이며 출제 경향도 비슷할 것으로 보여,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를 접해 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입시관련 사이트나 대학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서울지역 주요대학 대부분이 일반전형 등에 논술을 도입했다.

역시 입시관련 사이트나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출문제와 모의평가 문제, 출제지침, 문제 유형 등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합뉴스

서울 주요대학 ‘수시’ 80%까지 확대

서울 주요 대학의 수시모집 전형안을 살펴보면 선발인원이 전체 정원의 60~80%에 달하는 곳이 많다.

◇고려대= 수시1차에는 지역우수인재(550명), 세계선도인재(250명), 과학영재(170명), 국제학부(45명) 전형으로 총 1천15명을 모집하며, 2차에는 일반전형(1천436명), 월드KU(50명), 사회공헌자(40명), 체육특기자(45명), 미래로KU(정원외 60명) 전형으로 모두 1천631명을 모집한다. 수시1차의 지역우수인재 전형은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서를 받은 학생 가운데 학생부와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 서류(70%)와 면접(30%)을 반영해 선발한다.

◇서강대= 수시 1,2차에서 전체 모집정원의 약 65%인 1천75명을 뽑는다. 수시 1차는 일반전형·학교생활우수자·알바트로스 국제화·글로벌 과학인재·특기자 등 5개 전형이 있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중 전공예약제로 338명을 뽑는 일반전형은 학생부 30%와 논술 50%, 구술면접 20%로 평가한다. 입학사정관제인 학교생활우수자 전형(114명)은 교과 50%, 서류 20%, 면접 30% 비율을 적용한다. 수시2차의 일반전형(413명)은 학생부 30%와 논술 70%로 뽑으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서울대=총 선발인원 3096명 가운데 60.9%인 1884명을 수시 모집한다. 교과성적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균형선발 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성적만으로 2배수를 뽑으며 2단계에서는 입학사정관이 서류평가와 면접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729명을 최종 선발한다. 지난해에는 2단계에서 학생의 교과성적과 면접 및 구술고사 결과를 비율에 따라 단순 합산해 합격자를 가렸지만 올해부터는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농어촌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정원외)의 규모는 지난해 140명에서 190명으로 늘었다.

◇연세대=수시 선발인원을 전체 정원의 약 80%(2826명·정원외 100명 포함)로 대거 늘렸다. 작년 수시 비율은 50%였다. 올해부터는 모집단위의 각 전형에 중복지원을 허용했다.

수시 1차는 일반우수자·조기졸업자·글로벌 리더 전형에서 논술을 친다. 가장 인원이 많은 일반우수자(1150명) 전형은 학생부와 논술을 절반씩 반영해 뽑되 이중 수능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는 학생부(20%)와 논술(80%)로 우선 선발한다.

우선선발 수능자격기준은 인문계가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모두 1등급, 자연계는 수리(가)와 과탐이 모두 1등급이어야 한다. 전체 정원의 70% 내외를 이 방식으로 뽑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대학별 수시 학생부 반영비율

▲일반·인문사회계열

구분	대학명	합계
100%	〈국립〉강릉원주대, 경북대, 경상대, 군산대, 목포대, 서울대, 서울산업대, 안동대, 전북대, 제주대, 진주산업대, 충남대, 충주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밭대	16개교
	〈사립〉가천의대, 건국대(충주), 건동대, 건양대, 경남대, 경동대, 경일대, 경주대, 경희대(서울), 경희대(국제), 고려대(세종), 고신대, 계명대, 관동대, 광운대, 그리스도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단국대(죽전),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대구외국어대, 대구한의대, 대불대, 대신대, 대전대, 덕성여대, 동국대(서울), 동덕여대, 동아대, 동양대, 명신대, 명지대(서울), 명지대(용인), 목원대, 목포가톨릭대, 배재대, 부산외국어대, 상명대(서울), 상명대(천안), 상지대,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세명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경대, 안양대, 예수대, 용인대, 울산대, 원광대, 위덕대, 인하대, 조선대, 중부대, 중앙대(서울), 중앙대(안성), 청운대, 청주대, 초당대, 탐라대, 평택대, 한국국제대, 한국기술교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국외국어대(서울), 한국외국어대(용인),한남대, 한려대, 한북대, 한서대, 한성대, 한신대, 한일장신대, 협성대, 호원대, 호서대, 홍익대(서울), 홍익대(조치원)	84개교
	〈교육대학〉진주교대	1개교
80%이상	〈사립〉가야대, 경운대, 광주대, 극동대, 동국대(경주), 동서대, 영동대, 우석대, 우송대, 을지대(대전), 전주대, 한중대	12개교
	〈교육대학〉 전주교대	1개교
60%이상	〈국립〉 강원대(춘천)	1개교
	〈사립〉 광신대, 광주여대, 금강대, 김천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대진대, 동신대, 백석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세종대, 영남대, 예원예술대, 차의과학대, 침례신학대, 한국항공대, 한라대, 한세대	18개교
50%이상	감리교신학대, 경기대(서울), 대구대, 대구예술대, 삼육대, 서경대, 성민대, 연세대, 영남신학대, 을지대(성남), 인제대, 중원대, 한림대, 호남대, 호남신학대	15개교
40%이상	가톨릭대, 강남대, 경원대, 고려대(서울), 남부대, 대전가톨릭대, 대전신학대, 부산장신대, 숙명여대, 연세대(원주), 영산선학대, 이화여대, 칼빈대, 한양대(서울), 한양대(안산)	15개교
30%이상	서강대, 성균관대, 수원대, 아세아연합신학대	4개교
30%미만	루터대, 서울장신대, 아주대	3개교

▲일반·자연계열

구분	대학명	합계
100%	〈국립〉강릉원주대, 경북대, 군산대, 금오공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서울대, 서울산업대, 안동대, 전북대, 제주대, 진주산업대, 충남대, 충주대, 한경대	15개교
	〈사립〉가천의대, 건국대(충주), 건동대, 건양대, 경남대, 경동대, 경일대, 경주대, 경희대(서울), 경희대(국제), 고려대(세종), 고신대, 계명대, 관동대, 광운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단국대(죽전),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덕성여대, 동국대(서울), 동덕여대, 동아대, 동양대, 명신대, 명지대(용인), 목원대, 목포가톨릭대, 배재대, 부산외국어대, 상명대(서울), 상명대(천안), 상지대, 서남대(남원), 서남대(아산),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세명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경대, 안양대, 영동대, 예수대, 울산대, 원광대, 위덕대, 인하대, 조선대, 중부대, 중앙대(서울), 중앙대(안성), 청운대, 청주대, 초당대, 탐라대, 평택대, 한국국제대, 한국기술교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국외국어대(용인), 한남대, 한려대, 한북대, 한서대, 한성대, 한신대, 협성대, 호원대, 홍익대(서울), 홍익대(조치원)	77개교
80%이상	〈국립〉경상대	1개교
	〈사립〉가야대, 경운대, 광주대, 극동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동국대(경주), 동서대, 우석대, 우송대, 을지대(대전), 전주대, 한중대	12개교
60%이상	〈국립〉 강원대(춘천), 순천대, 한밭대	3개교
	〈사립〉 광주여대, 김천대, 대불대, 대진대, 동신대, 백석대, 서울여대, 세종대,영남대, 차의과학대, 한국항공대, 한라대, 한세대	13개교
50%이상	〈사립〉 경기대(서울), 경기대(수원), 대구대, 삼육대, 서경대, 연세대(서울), 을지대(성남), 인제대, 한림대, 호남대	10개교
40%이상	〈사립〉 가톨릭대, 강남대, 경원대, 고려대(서울), 남부대, 숙명여대, 연세대(원주), 이화여대, 한양대(서울), 한양대(안산)	10개교
30%이상	〈사립〉 단국대(천안), 서강대, 성균관대, 수원대	4개교
30%미만	〈사립〉 아주대	1개교

◇대학별 수시 면접 반영비율

▲일반·인문사회계열

구분	대학명	합계
20%이상	〈국립〉 경상대, 서울대, 순천대, 안동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주대, 한국교원대	9개교
	〈사립〉가천의과학대, 건국대(충주), 건양대, 경남대, 경동대, 경북외국어대, 광신대, 광주대, 광주여대, 극동대, 금강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나사렛대, 남부대, 남서울대, 단국대(죽전), 단국대(천안), 대구대, 대구예술대, 대신대, 대전가톨릭대, 대전대, 대전신학대, 대진대, 동덕여대, 동신대, 동양대, 루터대, 명지대(서울), 배재대, 백석대, 부산장신대, 삼육대, 상명대(서울), 상지대, 서강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서울장신대, 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민대, 숭실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영남대, 영남신학대, 영동대, 예원예술대, 우송대, 우석대, 울산대, 원광대, 위덕대, 을지대(대전), 인제대, 인하대, 전주대, 중부대, 중앙승가대, 중원대,차의과학대, 청운대, 청주대, 초당대, 침례신학대, 칼빈대, 평택대, 한국기술교대, 한동대, 한라대, 한림대, 한서대, 한세대, 한신대, 한일장신대, 한중대, 호남대, 호남신학대, 호원대, 홍익대(조치원)	81개교
	〈교육대학〉전주교대, 진주교대	2개교
10%이상	〈사립〉가야대, 경운대, 고신대, 김천대, 부산외국어대, 아주대, 조선대	7개교
	〈교육대학〉 대구교대	1개교
5%이상	〈사립〉광신대, 금강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대진대, 동신대, 백석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차의과학대, 침례신학대, 한라대,	11개교

▲일반·자연계열

구분	대학명	합계
20%이상	〈국립〉 경상대, 금오공대, 서울대, 순천대, 안동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주대	9개교
	〈사립〉 가천의과학대, 건국대(충주), 건양대, 경남대, 계명대, 광주대, 광주여대, 극동대, 나사렛대, 남부대, 남서울대, 단국대(죽전), 단국대(천안), 대구대, 대불대, 대전대, 대진대, 동덕여대, 동신대, 동양대, 명지대(용인), 백석대, 삼육대, 상명대(서울), 상지대, 서강대, 서울여대, 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숭실대, 영남대, 영동대, 우석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위덕대, 을지대(대전), 인제대, 인하대, 전주대, 중부대, 중원대, 차의과학대, 청주대, 한국기술교대, 한국산업기술대, 한동대, 한라대, 한림대, 한서대, 한세대, 한중대, 호남대, 호원대, 홍익대(조치원)	57개교
10%이상	〈사립〉가야대, 경운대, 경일대, 고신대, 김천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부산외국어대, 조선대	8개교
5% 이상	〈사립〉 동국대(경주), 동서대	2개교

◇대학별 수시 논술 반영비율

▲일반·인문사회계열

구분	대학명	합계
20%이상	〈국립〉 경북대(대구), 서울대	2개교
	〈사립〉 경기대(서울), 경기대(수원), 경희대(서울), 경희대(국제), 고려대(서울), 광운대, 단국대(죽전), 대전가톨릭대, 덕성여대, 동국대(서울), 명지대(서울), 상명대(서울), 서강대, 서울여대, 선문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영산선학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서울), 중앙대(안성), 한국외국어대(서울), 한국외국어대(용인), 한국항공대, 한양대(서울), 홍익대(서울)	32개교

▲일반·자연계열

구분	대학명	합계
20%이상	〈국립〉 경북대(대구)	1개교
	〈사립〉 건양대, 경기대(수원), 경희대(서울), 경희대(국제), 고려대(서울), 광운대, 단국대(죽전), 덕성여대, 동국대(경주), 동국대(서울), 상명대(서울), 상지대, 서강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울산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서울), 중앙대(안성), 한국외국어대(용인), 한국항공대, 한양대(서울), 홍익대(서울)	30개교

◇수시모집 입학사정관제 특이전형

대학	모집시기	기타유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서울대학교	수시	북한이탈주민특별전형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종합평가 (학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기타 증빙서류 등 제출된 모든 서류를 평가 + 면접, 음·미대는 실기도 포함)
전남대학교(광주)	수시	농업인후계자	- 1단계 : 학생부 100 - 2단계 : 서류평가 70, 면접 30
		대안학교장추천자	- 1단계 : 학생부 100 - 2단계 : 서류평가 70, 면접 30
한국교원대학교	수시	농어촌학생	- 1단계 : 학생부 100 - 2단계 : 심층면접 50, 서류심사 50
		독립유공자손자녀 및 국가유공자자녀	- 1단계 : 학생부 100 - 2단계 : 심층면접 50, 서류심사 50
		청람인재특별전형	- 제1단계 : 학생부 100 - 제2단계 : 심층면접 50, 서류 심사 50
		형설인재특별전형	- 1단계 : 학생부 100 - 2단계 : 심층면접 50, 서류 심사 50
국민대학교	수시1차	글로벌프런티어	- 1단계 : 서류평가 100 - 2단계 : 1단계 성적 70, 면접 30
단국대학교(천안)	수시1차	BT특성화인재	- 1단계 : 학생부(교과)60, 학생부(비교과)·자기소개서 등 40 - 2단계 : 면접100
순천향대학교	수시1차	의약바이오인재	- 1단계 : 학생부 80 + 서류평가 20 - 2단계 : 1단계 성적 70 + 심층면접 30
숭실대학교	수시1차	대안학교	- 1단계 : 서류종합평가 100 (5배수선발) - 2단계 : 1단계성적 70 + 면접 30
		이북5도민	- 1단계 : 서류 종합평가 100 (모집인원의 5배수) - 최종 : 1단계성적 70 + 면접 30
우석대학교	수시1차	특수교육대상자	- 1단계 : 교과 50 서류평가 50 - 2단계 : 1단계성적 50 심층면접 50
		특수교육인재	- 1단계 : 교과 50 서류평가 50 - 2단계 : 1단계성적 50 심층면접 50
원광대학교	수시1차	만학도 또는 주부	- 1단계 : 서류 100 - 2단계 : 1단계성적 50 면접 50
KAIST	1차(학교장추천)전형		- 1단계 : 탐구역량, 대인역량, 내적역량, 특정분야 영재성에 대한 종합평가(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없음) - 2단계 : 탐구역량, 대인역량, 내형역량, 특정분야 영재성에 대한 종합평가(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없음) - 3단계 : 단계별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선발위원회에서 최종 선발
	2차(일반)전형		- 1단계 : 탐구역량, 대인역량, 내적역량, 특정분야 영재성에 대한 종합평가(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없음) - 2단계 : 탐구역량, 대인역량, 내적역량, 특정분야 영재성에 대한 종합평가(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없음) - 3단계 : 단계별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선발위원회에서 최종 선발
	외국인전형		- 1단계 : 탐구역량, 대인역량, 내적역량, 특정분야 영재성에 대한 종합평가(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없음) - 2단계 : 탐구역량, 대인역량, 내적역량, 특정분야 영재성에 대한 종합평가(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없음) ※필요시 실시 - 3단계 : 단계별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선발위원회에서 최종 선발
광주과학기술원	수시1차	학사과정 1차	- 1단계(서류평가) : 학교생활기록부 내신 산출기준(정량)에 따라 환산 + 우수성 입증자료를 평가기준(정성)에 따라 종합평가 + 교사추천서를 평가기준(정성)에 따라 종합평가 + 에세이를 평가기준(정성)에 따라 평가 + 입학사정관의 재량평가 - 2단계(면접평가) : 서류평가 점수 산출기준(정량)에 따라 환산 + 내적역량을 평가기준(정성)에 따라 종합평가 + 탐구역량을 평가기준(정성)에 따라 종합평가 - 3단계(학생선발위원회)

〈자료:한국대학교육협의회〉